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0, No. 6, June 2015
www.ksci.re.kr
http://dx.doi.org/10.9708/jksci.2015.20.6.099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과 학업성취도에 관한 실증적 인과관계 분석

이신숙*

A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procrastination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Shin-Sook LEE*

요 약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중학생이 인지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스트레스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부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규명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 Keywords : 학업적 꾸물거림, 스트레스, 학업성취도,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It also analyzed the influences of stress level recogniz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First, it examined theoretical and preceding studies and assumed that sub-fa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such as behavioral,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affected their academic achievement. It was assumed that the middle school students' stress had the direct mediating effects on their academic achievement.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sub-factors of academic procrastin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such as behavioral, cognitive and emotional factors had partially direct influence on their stress and academic achievement. It was shown that the analysis of mediating effects from middle school students' stress had no influence on the

• 제1저자 : 이신숙
• 투고일 : 2015. 5. 15 , 심사일 : 2015. 5. 27, 게재확정일 : 2015. 6. 5.
*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School of Administration and Social Welfare, Chosun University)

academic achievement. This study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of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as an alternativ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 Keywords : academic procrastination, stress, academic achievement, behavioral factors, cognitive factors, emotional factors

I. 서 론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내·외적인 도전들로 인한 긴장을 주며, 환경과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며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부정적인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업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위해서는 학업과 관련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 바라직 하겠다.

학업성취도와 관련항 대표적인 요인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학업성취도와 시험스트레스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차나 환경특성은 학업성취도와 시험스트레스 정도를 유의하게 예측하고 있다.[1]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은 학업, 학교생활, 가정문제, 부모문제, 친구와의 문제, 교사의 문제 등이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요인별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학업 등 학교관련 스트레스가 대부분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서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학업적 꾸물거림,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이들 변인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합적인 인과관계 구조를 가설적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모형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학업적 꾸물거림,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 간의 인과관계 구조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개선시키는 함의를 도출하여,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정책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은 문헌조사와 실증분석이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타당도분석, 신뢰도분석 등을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 패키지를 활용하고, 변수 간의 영향력의 정도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의 프로그램패키지인 AMOS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통하여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변인을 도출하고, 도출된 변인을 바탕으로 연구방법을 제시한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며,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

꾸물거림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꾸물거림의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학생들에게서는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2] 국내에서는 꾸물거림에 대한 용어는 아직 분명히 정의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김광숙[3] 등은 꾸물거림이라고 정의 하고 있고, 서은희[4] 등은 지연행동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꾸물거림이 학자에 따라 다르게 표현 되듯이 꾸물거림의 정의도 다양하게 논의 되고 있다.

꾸물거림이란 주관적인 불편감을 경험하면서 불필요하게 과제를 미루는 것으로 정의 하면서, 근래에는 지연행동을 단지 공부습관이나 시간관리 문제가 아니라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인 요인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하였다.[5][6]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요인으로 꾸물거림을 정의 하였다. 행동적 요인은 마감시간까지 과제의 시작이나 실행 혹은 완성을 미루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인지적 요인은 수행하려는 의도와 우선순위 혹은 과제에 관련된 목표들과 과제수행 사이의 불일치를 말하며, 정서적 요인은 개인이 마감시간 까지 과제를 시작하거나 수행하지 않고 완수하지 않는 경향성 때문에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고통으로 정의 하였다.

꾸물거림에 대한 정의는 해야 할 과제, 비합리성, 의도성, 부정적인 결과의 예상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즉 꾸물거림

이란 하려고 하거나 해야 할 과제를 미루었을 때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어진 기간 내에 그 과제를 시작하거나 완성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미루는 것을 말한다.〔7〕 본 연구에서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학업과 관련하여 학업태도, 학습행동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며, 이는 해야 할 과제나 학습 소홀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고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적 꾸물거림을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7〕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변화와 도전 그리고 감성이 포함되어 있는 동안 스트레스는 항상 존재하게 되므로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처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1〕

개인학습자들은 생애발달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청소년시기에 있다. 스트레스는 적응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청소년기의 학습자 스트레스는 가정, 학교, 사회 등의 제반 상황에서 심리적 스트레스의 주요 원천인 좌절, 갈등, 억압 및 불안을 중심으로 유발된다.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정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스트레스가 있다.〔8〕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새로운 성장과 발달에 따른 결과로써 긴장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며, 성장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경험들을 배울 때에도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에 대해 황영숙〔9〕은 생활사건에서 생겨나는 압박감으로 적정수준까지는 생활하는데 원동력으로 작용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서 생활 할 때는 효율성이 상실된다고 보았다. 생활 속의 사건과 사회적 변화의 영향을 평가 할 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즉, 예측 할 수 없는 상황, 익숙하지 않은 상황,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상황, 회피할 수 없는 상황, 필연적인 상황이 그 예이다〔10〕. 스트레스는 적응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는데 개인의 취약성을 증가시킨다〔11〕〔12〕

청소년기는 어느 시기보다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그 성격도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13〕. 발달과정상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심리적, 신체적, 생리적, 인지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등의 자아 정체감을 찾아야한다〔14〕. 청소년기는 사회적인 압력, 요구와 적응력과 독립, 책임에 대한 압박 때문이다. 빠른 사회변화와 현실 속에서 불확실한 미래, 치열한 경쟁, 성적, 이성관계, 표면화된 대인관계, 기성세대와의 세대차이 등의 적응적 요구를 겪기 때문이다〔15〕.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정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스트레스가 있다.〔8〕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적 꾸물거림의 요인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8〕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적용하였으며, 중학생에게 스트레스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으로 보았다.

3.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란 학습자 개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학습에 대한 도달의 정도를 학업성취도라고 하였다.〔16〕 주로 교육과정에 속한 교과목들의 수행정도를 나타낸다. 학습의 결과는 교사나 시험 등 학습자 본인과는 별개의 어떤 가치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교육목표의 완수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1〕 학업성취도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학업성취에 대한 관련변인 간의 분석과 초등학생의 정의적 특성 및 학업성취와의 관계 등이 있다.

학습적응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게 되어 학교를 싫어하게 되고,〔17〕 학교의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는 것을 가정 하였다. 그 결과는 학업성취감이 부진하면 비행행동을 하게 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애착을 감소시키며 교육적 목표에 대한 관여와 교육에 대한 열망 수준을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 대한 애착이 낮아져 비행친구와 접촉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행으로 연결되는 인과적 모델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시기인 중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학업스트레스가 높아지며,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강도도 심해진다.〔18〕〔19〕

학업스트레스는 학생이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심리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상태라고 정의한다.〔18〕 학업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적, 수업, 공부에서의 학업스트레스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0〕〔21〕

본 연구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학습에 대한 능력을 의미하며, 수업의 내용에 대한 즐거움과 수업시간에 적극적인 흥미를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가정 하였다.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는 〔16〕의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를 적용하였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 모형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과 학업성취도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영향력의 정도를 규명해 보는 것을 주된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모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결과 및 이론에 근거하여 관련된 여러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 모형을 설정하고, 실제자료를 통하여 연구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때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2]

앞서 고찰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학업적 꾸물거림을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스트레스를 설정하고, 종속변수로서 학업성취도를 설정하였다.

그림 1은 변수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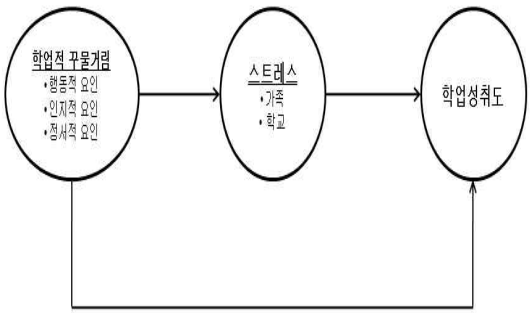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1.Research Model

2. 연구 가설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독립변수로 학업적 꾸물거림을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 등으로 설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스트레스를 가족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종속변수로서 학업성취도를 설정하였다.

연구가설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가설
Table 1. Research Hypothesis

가설 1.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중학생의 인지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중학생의 정서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중학생의 인지적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중학생의 정서적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7.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8. 중학생의 인지적 요인은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9. 중학생의 정서적 요인은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0. 중학생의 가족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1.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실증적 분석

1. 표본의 특성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의 실증적 분석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4년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A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의 1·2·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면대면 및 현장조사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459명을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성별에서는 남학생이 296(64.5%)명이고, 여학생은 163(35.5%) 명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유형은 국공립학교(57.5%)와 사립학교(42.5%)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학년에 있어서는 1학년(22.0%), 2학년(46.2%), 3학년(31.8%)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학교성적, 한 달 용돈, 종교 등을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표 2. 응답자의 특성
Table 2. Bemographics

구 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학생	296	64.5
	여학생	163	35.5
학교 유형	국공립학교	264	57.5
	사립학교	195	42.5

구 분		빈도(명)	비율(%)
학년	중1학년	101	22.0
	중2학년	212	46.2
	중3학년	146	31.8
학교성적	60점 이하	159	34.6
	61점 이상-70점 이하	79	17.2
	71점 이상-80점 이하	89	19.4
	81점 이상-90점 이하	87	19.0
	91점 이상	45	9.8
한 달 용돈	2만원 미만	168	36.6
	2만원 이상-4만원 미만	160	34.9
	4만원 이상-6만원 미만	71	15.5
	6만원 이상-8만원 미만	26	5.7
	8만원 이상-10만원 미만	15	3.3
	10만원 이상	19	4.1
종교	불교	55	12.0
	기독교	137	29.8
	천주교	26	5.7
	기타종교	9	2.0
	종교 없음	232	50.5

변수명	항목수	요인값	고유값	분산비율	분산누적비율
인지적 요인	v1	.664	3.760	11.750	28.306
	v2	.762			
	v3	.763			
	v4	.743			
	v5	.653			
	v6	.622			
정서적 요인	v1	.798	3.164	9.887	38.193
	v2	.804			
	v3	.794			
	v4	.777			
	v5	.593			
가족 스트레스	v1	.759	2.090	6.530	44.723
	v2	.855			
	v3	.705			
학교 스트레스	v1	.603	2.277	7.117	51.840
	v2	.737			
	v3	.647			
	v4	.737			
학업성취도	v1	.715	3.249	10.153	61.993
	v2	.799			
	v3	.779			
	v4	.749			
	v5	.691			
KMO(Kaiser-Meyer-Olkin) : .904, χ^2 : 6625.754, df : 496, 유의확률: 0.000					

2.. 측정도구 검증

2.1 타당도분석

요인분석 결과 학업적 꾸물거림은 총 20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스트레스는 총 7개의 설문항목으로 구성하였다. 학업성취도는 5개의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KMO (Kaiser- Meyer-Olkin): .904, χ^2: 6625.754, df는 496이며, 유의확률은 0.000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요인값은 .6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측정변수의 타당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과 같다.

2.2 신뢰도분석

신뢰도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신뢰도 분석결과 학업적 꾸물거림의 하위변수인 행동적 요인 .914, 인지적 요인 .856, 정서적 요인은 .843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스트레스는 .732, 학교스트레스는 .618로 제시되었다. 학업성취도는 .835로 모든 변수에서 Cronbach α 이 .6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타당성 분석결과
Table 3. Confirmatary analysis of Validity

변수명	항목수	요인값	고유값	분산비율	분산누적비율
행동적 요인	v1	.711	5.298	16.557	16.557
	v2	.780			
	v3	.760			
	v4	.639			
	v5	.735			
	v6	.700			
	v7	.777			
	v8	.634			
	v9	.666			

표 4. 신뢰도분석결과
Table 4. Confirmatary analysis of Reliability

변수명			설문항목	Cronbah-Alpha
독립변수	학업적 꾸물거림	행동적 요인	9	.914
		인지적 요인	6	.856
		정서적 요인	5	.843
매개변수	스트레스	가족 스트레스	3	.732
		학교 스트레스	4	.618
종속변수	학업성취도		5	.835

3. 가설 검증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표 5와 같다.

첫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가족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에서 3까지 가설검증 결과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경로계수 .062, p값 .453)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요인(경로계수 .212, p값 .000)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서적 요인(경로계수 .263, p값 .000)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학교스트레스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4에서 5까지 가설검증 결과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경로계수 .074, p값 .389)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요인(경로계수 .396, p값 .000)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서적 요인(경로계수 .058, p값 .371)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7에서 8까지 가설검증 결과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경로계수 -.396, p값 .000)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요인(경로계수 -.191, p값 .016)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서적 요인(경로계수 -.174, p값 .005)은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중학생의 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 10에서 11까지 가설검증 결과 중학생의 가족스트레스(경로계수 -.027, p값 .613)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스트레스(경로계수 -.109, p값 .089)는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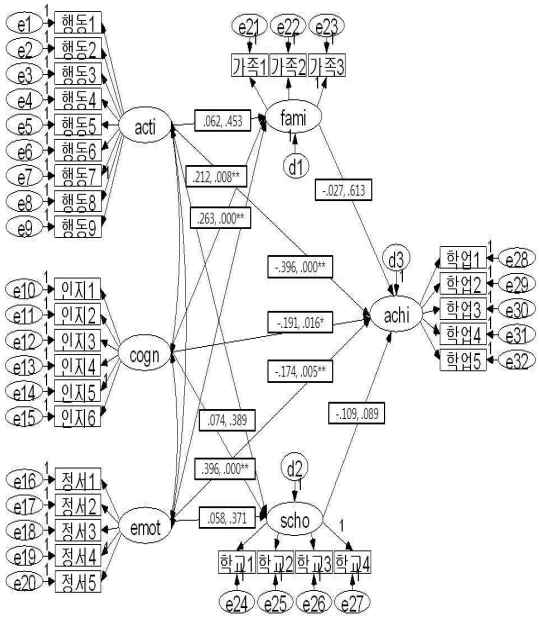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서 행동적 요인은 학업성취도, 인지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 학교스트레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서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영향력이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학생이 받는 스트레스는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학업성취 보다는 학교생활 적응 등에 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에 대한 검증결과 그림 2와 같다.

표 5. 가설검증 결과
Table 5. Summary of Findings in Hypothesis

	가 설	경로계수	C.R	p	채택여부
1	행동적 요인 → 가족스트레스	.062	.751	.453	기각
2	인지적 요인 → 가족스트레스	.212	2.661	.008**	**채택**
3	정서적 요인 → 가족스트레스	.263	3.814	.000**	**채택**
4	행동적 요인 → 학교스트레스	.074	.862	.389	기각
5	인지적 요인 → 학교스트레스	.396	4.528	.000**	**채택**
6	정서적 요인 → 학교스트레스	.058	.894	.371	기각
7	행동적 요인 → 학업성취도	-.396	-4.821	.000**	**채택**
8	인지적 요인 → 학업성취도	-.191	-2.413	.016*	**채택**
9	정서적 요인 → 학업성취도	-.174	-2.806	.005**	**채택**
10	가족스트레스 → 학업성취도	-.027	-.506	.613	기각
11	학교스트레스 → 학업성취도	-.109	-1.701	.089	기각

* : $p \leq .05$, ** : $p \leq .01$



1. 경로계수
2. * : $p \leq .05$ ** : $p \leq .01$
3. acti: 행동적 요인, cogn: 인지적 요인, emot: 정서적 요인, fami: 가족스트레스, scho: 학교스트레스, achi: 학업성취도

그림 2. 연구모형 검증결과
Fig.2.Research Model Verification Results

V. 분석결과 및 시사점 도출

본 연구는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이론적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는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정서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인지적 요인은 학교스트레스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는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행동적 요인은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의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등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인지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와 학교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지적 요인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습과 복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키는 것이며, 규칙적인 학습과 매일 학습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정서적 요인은 가족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들의 정서적 요인을 키워주는 것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낮추어 주는 방법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중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하며, 자발적인 계획 학습을 통해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인 행동적 요인, 인지적 요인, 정서적 요인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학생의 학업적 꾸물거림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행동적 요인은 학업성취도에 가장 영향력이 있다. 중학생들이 학습에 있어서 반복적인 학습계획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의 확보와 수준별 맞춤학습 등이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학업적 꾸물거림이 스트레스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분석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업적 꾸물거림과 학업성취도와의 관계에서 인구사회학적 변인인 성별, 학년, 학업성적 등에 대한 차이 검증의 연구 등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

REFERENCES

[1] Yang ae gyeong·Jo ho j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academic achievement according to the stress levels of middle · high school students. "Learner-centered curriculum Education", 9(1), 341-358, 2009.

[2] Rothblum, E. D., Soloman, S. J., & Murakami, J. Affective, cognitive, and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high and low procrastin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87-394, 1986.

[3] Kim Gwang Suk. "Impact on the effects linger and linger Upon depression of the five personality factors for a sensation: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and self-esteem".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4] Seo eun hui. " Delay action to overcome academic program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research"Yonsei University doctoral thesis, 2006.

[5] Soloman, S. J., & Rothblum, E. D. Academic procrastination : Fenquency and cognitive-behavioralcorrelat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4), 503-509, 1984.

[6] Vestervelt, B. A. "An examination of the content and construct validity of four measures of procrastination". Unpublished dissertation, Carleton University. 2000.

[7] Choi Yoon Jung·Kim seong hui. Upon linger measure academic development for elementary school. "Study counseling", 9(1), 199-219, 2008.

[8] Kim Yong Rae·Kim Tae Eun. Stress learners,

school adaptation (coping) and academic performance, Hongik University Institute of Educatio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1, 5-33, 2004.

〔9〕 Hwang Yeong Suk. "academic achievement, academic self-concept, and academic stress on Elema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The Graduate School Han Yang University.1997

〔10〕 Wilkinson, Greg. "Understanding stress". British Medical Association Family doctor series Vol. 013. 2005

〔11〕 Woo so-Yeon.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The Graduate School Yeosei University. 2008

〔12〕 DuBois, D. L.,Felner, R. D., Mears H., & Krier, M. "Prospe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ce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r. 103(3), 511-522. 1994

〔13〕 Jeong Ok Bun, "adolescents development", HakJisa, 1998

〔14〕 Cohen, S., & Hobermanl, A.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1983

〔15〕 Kang Yong Ja, "A Comparative Study of Average Youth and Juvenile Delinquent about the Life Stressors and Coping. The graduate school Sangmyung Woment's University, 1996

〔16〕 Park Young Sin· Kim Ui Cheol Others. Longitudin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and the fulfillment of the Korea Youth.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 Social Issues", 10(3), 37-59, 2004.

〔17〕 Lee Shin Sook · Kim Yong seop. An Empirical Analysis of causality resilience and adaptability of junior schoo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19(3). 135-145. 2014.

〔18〕 Mo Sang Hyeon·Kim Mi Young:. Study on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affecting navigation and the protection factor effects on academic stress.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14(2), 1-19, 2009.

〔19〕 Lee Shin Sook·Kang Gil Hyun. Learning resilience factors impact on high school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Moderating Role of Stress around.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19(8). 187-196. 2014.

〔20〕 Park Byeong Gi·Park Seon Mi.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cademic Stress Scale. "Educational Psychology", 26(2), 563-585, 2012.

〔21〕 Felston, G., & Wilcox, K. Influence of stressand situation-specific mastery beliefs and satisfaction with social support on well-being and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Report", 70, 291-319, 1992.

〔22〕 Bae byeong ryeol. Amos 19 b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Principles and Practices. Book publishing Cheongram. 312-350. 2011.

저 자 소 개

이 신숙

2013: 조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 재: 조선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시간강사

관심분야: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가족복지

e-mail: ss1114@hanmail.net